나주시, '에너지 거점 도약' 내년도 국비 확보 '총력전'

윤병태 시장, 한병도 원내대표 등 면담

7개 핵심 사업 약 1천900억 지원 건의

2차 공공기관 이전·켄텍 예산확대 피력

"정치권 공조체계 유지 국비 확보 노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미래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핵심 현안 해결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인 행보에 나섰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윤병태 시장은 최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전북 익산)와 권칠승 정책위의장(경기 화성) 등을 잇따라 면담하고 전폭적인 예산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방문은 국회 예산안 심의 시기에 맞춰 나주시가 역점 추진 중인 핵심 사업의 국비 반영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 재정 지원 등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윤 시장은 신정훈 국회의원(민주당, 나주·화순)과 동행해 총 1천976억원 규모의 7개 국고 건의 사업을 설명했다.

특히 나주의 에너지산업 기반을 미래 첨단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한 4대 핵심 사업인 ▲전력설비 핵심기자재 상용화 기반 구축 ▲고전력반도체 모듈 인프라 구축 ▲기후테크 GX·AX 플랫폼 구축 ▲에너지 클라우드 공유 플랫폼 구축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집중 건의했다.

또한 영산강 수변 명품 자전거길 연결과 집중호우 대비 나주 배수개선 사업, 2027 국제농업박람회 개최 등 농업·관광 분야 필수 예산 반영도 챙겼다.

지역 미래 지도를 바꿀 주요 현안인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윤 시장은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연관 기관을 집적해야 함을 거듭 강조하며 농협중앙회와 발전5사 통합본사 등 핵심 기관이 빛가람혁신도시로 우선 이전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피력했다.

또한 켄텍의 안정적인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내년도 정부지원 예산을 92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줄 것과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2단계를 영산강 수변 랜드마크 조성사업으로 변경 승인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나주시는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가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정치권과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중앙부처 등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건의 사업들은 단순히 나주 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차대한 과제"라며 "예산안 심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와 정부를 찾아 필요한 정책 지원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윤병태(사진 왼쪽) 나주시장이 내년도 핵심 사업 국비 반영을 위해 최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예산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나주시 제공〉





'2026 청계면 도시재생 누구나 두:드림 축제'에서 축제장 부스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김산 무안군수(왼쪽)와 주민 참여형 부스 모습. 〈무안군 제공〉

무안군, 도시재생 '두:드림 축제' 마무리

목포대서 청계면 주민·상인·대학생 등

주민 제안·앵커사업 참여팀 성과 공유

김산 군수 "지역-대학 연계 상권 활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주민과 상인, 청년 대학생들이 한데 어우러져 도시재생의 성과를 나누고 대학가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소통의 장을 열었다.

1일 무안군에 따르면 최근 국립목포대학교 후문 일원에서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특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2026 청계면 도시재생 누구나 두:드림 축제'를 개최했다.

축제는 청계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와 상인회, 목포대 앵커사업단, SCOUT 호남제주권 사업단, 현장지원센터 등이 공동 참여해 그동안 기획해 온 도시재생 활동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 곳곳에는 특색 있는 주민 참여형 부스가 꾸려졌다. 현장지원센터는 모자이크 타일 냄비받침 만들기와 초성 사행시 이벤트 등을 운영했고 주민협의체는 가을 캠핑 분위기를 살린 '누구나 라면' 부스로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주민제안사업 참여 단체들은 수제 고추장·막걸리 만들기, 스포츠스태킹, 해초 냉우동 샐러드 품평회 등 주민 주도형 콘텐츠를 제공했다. 상인들 역시 도자기 판매와 책방 체험, 금융 교육 등 각자의 개성을 살린 부스로 축제를 빛냈다.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축제에 활력을 더했다. 목포대 앵커사업단 참여팀들은 폐태양광 패널을 재활용한 스마트팜을 비롯해 로컬 웹 매거진, 관광 애플리케이션, 캐릭터 상품 등 콘텐츠를 전시해 이목을 끌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주민은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 유익했다"며 "소통 행사가 계속 이어져 청계면과 대학 후문 거리가 활기찬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축제는 주민과 상인, 대학생이 굳건히 연대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체감하고 공유한 뜻깊은 자리"라며 "지역과 대학의 자원을 연계해 공동체와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신안군, 선심성 예산 절감 확보재원 민생 투입

관행적 보조금 성과평가 등 정비

年 부담금 3천400만원 절감 효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이 관행적 선심성 예산 집행을 절감해 확보 재원을 민생 사업에 활용한다.

1일 신안군에 따르면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 전면적인 성과 평가와 대대적인 정비에 돌입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항목을 걸러내 방만하게 운영되던 예산 누수를 막고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가입된 각종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 대해서도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군은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된 5개 단체를 과감히 축소해 기존 19개 가입 단체를 14개로 정비했다.

이를 통해 연간 1억300만원에 달하던 분담금을 6천900만원으로 대폭 절감하며 세금 낭비 요소를 원천 차단했다.

군정 전반의 위원회 정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비효율적이거나 유명무실하게 방치돼 온 65개 위원회를 집중 정비 대상으로 지정하고 특정 인사가 최대 6개 위원회를 겸직하던 기형적인 관행을 바로잡고 있다.

군은 다각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정을 타 용도로 쓰지 않고 민생 지원금 등 군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전액 투입할 계획이다.

/신안=양훈 기자

영암군, '2GW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속도

간척지 토지소유자 간담회 200명 참석

지자체 주도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방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이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삼호읍행정복지센터에서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사업 예정 부지 토지소유자와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군은 삼호·미암 간척지 일원 약 1천700만㎡ 부지에 2GW 이상 규모의 집적화단지를 조성해 '지산지소(地産地消)'와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군은 무분별한 개별 사업자의 경쟁적 부지 확보와 불공정 계약 피해를 막기 위해 지자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향후 사업 시행자 선정 시 재무 건전성과 이익 공유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거쳐 사업 추진 동의서를 접수하며 주민들의 뜻을 모았다.

군은 추가 간담회를 열어 토지소유자들과 지속 소통하고 에너지 기본소득과 복지사업을 연계한 이익 공유 모델을 구체화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투명하게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군민이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 학교폭력 예방 워크숍 성료

시·군 또래상담자 연합 경험 공유

방관 넘어 학교폭력 방어자 교육

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일 "최근 광양, 목포, 영광 등 각 시·군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또래상담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지역 또래상담자 연합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지역별 또래상담자들이 현장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의 폭을 넓히는 한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구제·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 교류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학교폭력 방어자 교육'과 맞춤형 집단 프로그램을 병행했으며 참가 청소년들은 학교폭력 상황을 목격했을 때 방관자로 머물지 않고 피해 학생에게 먼저 관심을 표현하며 도움을 제공하는 방어 행동을 집중적으로 익혔다.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즉각 실천할 수 있는 '나만의 방어행동 계획'을 수립하며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책임감과 실천 의지를 다졌다.

강은순 청소년미래재단 직무대행은 "또래상담자들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고 교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세운 계획을 바탕으로 작지만 의미 있는 방어 행동을 주도적으로 실천해, 건강한 교우 문화가 전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장영철 신임 함평부군수, 축산 현장 점검 잰걸음

저메탄 조사료 유통센터 등 방문

생산·가공·분뇨 자원화 발전 모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은 1일 "최근 장영철 신임 부군수가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등 주요 축산 사업장 4곳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지난달 부임한 장 부군수는 농업의 핵심 축인 축산업 현안을 파악하고 현장 소통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보에 나섰다.

장 부군수는 동함평산단 내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를 찾아 배합사료와 미생물 생산 시설 등을 살폈다. 이 센터는 올해 약 183억원의 매출이 기대되는 축산의 핵심 기반이다.

이어 함평축협 축산물유통센터와 한우 부산물 고농축 시설을 잇따라 방문해 곰탕·코인 육수 등 가공품 생산 현황을 확인하고 부가가치 창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업체인 농업회사법인 토지㈜를 찾아 퇴·액비 재활용 실태를 점검하며 친환경 축산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했다.

장영철 함평군 부군수는 "생산부터 가공·유통, 분뇨 자원화까지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의견을 꼼꼼히 살펴 각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영광군, 생활폐기물 주간 수거 시범운영

폐기물관리법 반영 오전 6시-오후 3시

오는 14일까지 4주간 운영후 체계 개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은 1일 "환경실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을 위해 주간 수거 시범운영을 시작하며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근무 시간 변경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주간 근무 원칙을 현장에 반영한 조치다. 어두운 새벽 시간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환경실무원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기존 새벽에 집중됐던 생활폐기물 수거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변경됐다. 군은 지난달 19일부터 첫 시범운영을 시작해 오는 14일까지 4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수거 시간 변경으로 출근 시간대 등 차량 통행이 많은 시점에 수거 차량이 운행되면서 일부 도로 구간에서의 교통 지체·작업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군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운행 동선과 작업 시간을 상시 점검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수거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수거 차량으로 인한 출근길 교통 지체와 소음 등 불가피한 불편에 대해 군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